

천마 생활관 이슈,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지난 4월 26일 늦은 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체육학과 천마 생활관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입을 모아 통제가 과하다며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했다. 학보사 역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제보를 받았고 체육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학과 A 학우는 “수업 시 모자와 슬리퍼를 통제하며, 저녁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식당이 갑자기 오후 7시 이후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잔반을 남길 시 벌점을 부여하고 벌점 누적 시 퇴관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 담배를 잡기 위해 불시에 방문을 벌격 열고 호실 점검을 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B 학우는 “통금 시간 21시는 타 대학에 비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준다고 말했지만, 정작 바뀌는 건 많지 않았다”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건우 체육학과 학생회장(체육 유도 20)과, 오진혁 부학생회장(체육 태권도 20)은 발빠르게 학우들에게 생활관장과 소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회장단은 생활관장 이영선 교수(투척부)를 만났다. 이들은 생활관 장실에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그 결과를 묻기 위해 기자가 직접 박건우 체육학과 회장과 이영선 생활관장, 김택성 생활관 조교를 만났다. 이 교수는 먼저 “전 관장님께서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셔서 규정이 완화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기존 규

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학생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강행한 점은 내 실수”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통금시간 조절 “변화 의향 있다”

체육학과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다른 아닌 통금 시간 조절이었다. 대학생 입장에서 21시 통금은 이를 수밖에 없다. 이에 박건우 학생회장은 직접 생활관장 이영선 교수에게 통금시간 조절을 건의했다. 이 교수는 “논의 할 의향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규정 준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학과 학생들은 우수한 운동선수 양성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학비·기숙사비·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학생들의 불만을 마냥 외면하지 않았다. 김 조교는 “적절한 시간을 정한 후 시범 운영 도입을 관장님께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각 종목 지도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새벽 운동을 위해 수면권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변화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 벌격 열고 점검? 다시는 없을 것

또 다른 이슈는 호실 점검이었다. 박건우 회장은 “사감선생님들이 호실 점검을 할 경우, 반드시 노크를 하고 방문하실 것을 약속 하셨다”라며 주요 논란이었던 호실 점검 이



한국체육대학교 천마 생활관 전경

야기를 먼저 꺼냈다. 다만, 흡연 및 음주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생활관 측의 의견에는 학생회도 동의했다. 김택성 조교는 “해당 민원이 들어올 시 민원을 묵과할 순 없다. 방송으로 모든 인원을 복도로 부른 후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방문을 벌격 여는 경우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 조교는 “3, 4년 전에는 마스터키로 방문을 열었으나 인권 교육을 받은 후 그러한 행위는 전면 폐지됐다. 방송으로 학생들을 복도로 부르는 이유도 인권 이유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만약 그러한 사감이 있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당 통제, 학생들의 협조 필요해...

식당 통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리사들 퇴근 시각은 오후 7시다.

이후 사용을 허가할 경우, 다음 날 출근하는 조리사들이 새벽에 잔반 청소를 해야 한다. 식사 준비로 바쁜 새벽에 청소까지 하기 어렵다는 게 조리사들의 입장이다. 이 교수는 “규정대로라면 오후 7시 이후 사용이 불가하다. 전 관장님께서 배려해주셨지만, 조리사 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라며 통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식중독 우려 및 식당을 통한 무단 외출, 늦은 식사로 인한 체중 관리 실패 등도 통제의 이유로 꼽았다.

별개로 박건우 회장은 남자 생활관에도 여자 생활관과 동일하게 각 층마다 전자레인지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다. “잔반을 남길 시 벌점 부여” 이슈의 경우 이영선 교수는 “이름을 적긴 했으나 실제로 벌점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잔반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매월 이백만 원 가량이 발생한다.

학생회, 생활관 간부 측은 입을 모아 자율 배식인 만큼 뒤늦게 밥을 먹는 학우들을 배려하고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했다. 이어, 복장 논란의 경우 이영선 교수는 “한 학생에게 직접 지적했던 기억이 난다. 모자를 쓰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운동할 때 생명과도 같은 발을 다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업하시는 교수님께 예의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예의를 지켜 줄 것을 부탁했다.

모두가 만족할 천마 생활관을 위해

끝으로 체육학과 박건우 학생회장은 “체육학과 학우 대부분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만큼 관련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학생회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 김택성 생활관 조교는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불만이나 건의사항이 있다면 찾아와서 편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소통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길 당부했다. 생활관장 이영선 교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생활관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이 포함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영선 교수는 회장단과 각 부 주장들을 포함 시켜서라도 소통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이슈를 계기로 체육학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고 또 운동선수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천마 생활관으로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한지용 편집장 football1229@naver.com

제3자 한국체대 로고 출원, 차분하게 정리한 우리 대학



4월 11일과 4월 12일자로 출원을 완료한 우리 대학 2가지 형태 로고

3월 27일 언론사 ‘브릿지경제’에서 “한국체육대 새 로고-상표 뺏기나...제3자 출원에 직원들 ‘우왕좌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체대 로고의 상표권이 제3자에 의해 출원됐지만, 취재가 진행되자 우리 대학이 뒤늦게 인지했다는 것이다. 담당 기자에게 어떤 경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인터

뷰를 요청했으나 응답은 오지 않았다.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임이삭 교수는 “상표는 아무나 출원이 가능하다. 다만, 출원은 ‘신청’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 로고가 바뀐 시기에 우리 대학도 출원하려 했으나 예산 및 절차의 문제로 당시에 하지 못했다. 바로 출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의 잘못은 아니다. 한국체대의 로고와 상표는 한국체대의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설사 제3자의 출원이 등록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즉 출원만 한다고 상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국가 등이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국립대학인 우리 대학은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의 상표권 ‘등록’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상표권을 담당하는 한국체대 산학협력단 측은 “상표출원자가 학교로 연락이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출원 또한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상표권 출원을 마친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

도서관?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메타버스 도서관이 개관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학우들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대부분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이용 방법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이에 다시 한번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궁금했던 부분을 짚어보려 한다. 학술정보원 학술정보관리팀 김기동 팀장과의 Q&A 인터뷰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Q. 도서관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시험 기간에는 연장되나요?

A: 시기마다 이용 시간이 변화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 5층 퍼스널 랩/스페셜 랩: 매일 07:00~22:00 ● 5층 프로젝트 룸, 7층 메타라운지: 평일 09:00~18:00 ● 8층 북 서비스: 평일 09:00~21:00
중간·기말고사
● 5층 퍼스널 랩/스페셜 랩: 매일 07:00~23:45 (학사일정에 따른 시험 기간 전/후 약 12일) ● 5층 프로젝트 룸, 7층 메타라운지: 평일 09:00~18:00 ● 8층 북 서비스: 평일 09:00~21:00
방학 중
● 5층 퍼스널 랩/스페셜 랩: 매일 07:00~22:00 ● 5층 프로젝트 룸, 7층 메타라운지: 평일 09:00~18:00 ● 8층 북 서비스: 평일 09:00~18:00

Q. 도서관 5, 8층에 열람석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지않아요. 어떻게 예약할 수 있나요?

A: 구글 혹은 애플스토어에서 ‘한국체육

대학교 학술정보원’ 앱을 설치하시면 원하는 층과 좌석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라 이용 중 불편한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안내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휴학생은 열람실을 따로 예약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A: 휴학생도 열람실(퍼스널 랩, 스페셜 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 8층 데스크에 방문하여 휴학생 열람실 사용을 승인 처리해야 합니다.

Q. 5층에 있는 프로젝트 룸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A: 프로젝트 룸도 마찬가지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일 예약은 불가하고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며, 예약 신청자의 QR코드로만 출입문이 열립니다. 또 예약 시간 20분 이후부터는 입장이 불가하니 이용하실 때 주의 부탁드립니다!

Q. 학생들 사이에서 ‘도서관 예약제가 의미 없는 것 같다. 예약하고 해당 자리에 가보니 다른 학생이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도서관 좌석 예약제는 현재 대학교 대부분에서 시행 중입니다. 무분별한 좌석 점유와 사석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방문자 수와 이용 시간의 통계가 정확해집니다. 이번 ‘열람실 개방 시간 연장’에도 예약제 시스템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예약제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이전 열람실은 개방되어 있었기에 혼선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좌석 이용 대비 예약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추가로 현재 위치, 좌석번호와 함께 8층 데스크 혹은 02-410-6645로 문의하시면 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도서관 문화는 학생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출범... 우리 대학 육현철 교수, 위원으로 참여



4월 3일 열린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식에 참여한 육현철 교수(왼쪽 첫 번째)

4월 3일,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촉식을 갖고 본격 출범했다.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서울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체육 분야 중요 사항을 협의, 자문하는 기구로 송파구 최초로 구성됐다.

위원으로 위촉된 생활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육현철 교수는 “송파구정장직 인수위

원회 교육문화체육 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으로 송파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또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로 살았고, 우리 한국체대에 입학해 엘리트 선수로 활동했다. 우리 대학과 협업을 통해 송파체육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한편, 구는 첫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촉식 수여와 함께 올 한해 송파구의 체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앞으로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체육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체육단체와 학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